

효성, 탄소섬유 프로젝트 “첫삽”

토지주 80% 이상 승낙으로 2월8일 기공식 ... 국산화 첫 단추

효성이 전라북도 전주에 국내 첫 중성능 탄소섬유 공장을 건설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 80% 이상의 승낙을 받아 2월8일 탄소섬유공장 기공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2월6일 발표했다.

공장 건설은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소섬유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해 상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그동안 보상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와 효성은 7월 말까지 서둘러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시험생산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섬유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정부와 전주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탄소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관과 기업들을 집적화해 탄소소재의 조기 산업화를 이루려는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1조40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6>